CASE 10

크레용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NY N361141 (2026.05.21.)
- **쟁 점 사 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말레이시아
- **최종 원산지**: 중국

Ⅱ 사실관계

<table>
<tr><td>용도</td><td colspan="3">• 고무 타이어의 구멍, 균열 또는 마모 부위를 표시하고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표시용 크레용</td></tr>
<tr><td rowspan="2">재료</td><td>중국</td><td>• 파라핀 왁스
• 스테아르산
• 활석분
• 이산화티타늄</td></tr>
<tr><td>말레이시아</td><td>• 라벨
• 포장재</td></tr>
<tr><td>Sourcing 및 공정 흐름도</td><td colspan="3">
</td></tr>
<tr><td rowspan="2">상세 공정</td><td>중국</td><td>• 파라핀 왁스, 스테아르산, 활석분, 이산화티타늄 생산</td></tr>
<tr><td>말레이시아</td><td>• 원료를 가열 및 혼합하여 액체 상태로 용융
• 용융된 왁스 액체를 육각형 주형에 부어 성형
• 냉각라인을 통해 냉각
• 라벨 부착 후 시험 및 포장</td></tr>
</table>

Ⅲ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진 원재료 혼합 및 성형 공정은 중국산 재료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

《CBP의 판정》

⊘ 크레용의 본질은 파라핀 왁스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왁스와 기타 원료를 가열 및 혼합하고 성형하는 공정은 중국산 파라핀 왁스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파라핀 왁스의 원산지인 중국임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Ⅳ 시사점

⊘ 왁스계 원료를 가열·용융한 후 주형에 붓고 냉각하여 막대형 완제품으로 성형하더라도 핵심 조성물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기본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려움

⊘ 따라서, 핵심 조성물이 조성된 국가가 어디인지와 함께 후속 공정에서 새로운 특성이나 용도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후속 공정이 단순 성형에 그친 경우 원산지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조성물의 제조국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립스틱
사례번호	NY N008578 (2007.04.16.)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프랑스] - 벌크 상태의 립스틱 원료 생산 • [중국] - 소매용 립스틱 용기 및 뚜껑 제조 - 립스틱 원료를 가열하여 관형 몰드에 부어 성형 - 냉각 후 용기에 삽입 - 최종 포장
판정 결과	• 벌크 상태의 립스틱 원료와 완성된 립스틱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립스틱이라는 동일한 명칭과 용도를 가짐 • 프랑스산 립스틱 원료는 중국에서 추가 가공 및 재포장되더라도 그 특성과 용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유의사항 :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